

확대투사원리의 제거와 대안 분석*

주 치 운 **

차 례

1. 서론
2. 최소주의에서의 확대투사원리(EPP)
3. EPP 제거와 대안분석
4. 결론

1. 서론

Chomsky(1981)의 “모든 절은 주어의 필요로 한다.”라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의 등장 이래 지금까지 확대투사원리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Chomsky(1981)의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으로서 주어의 없는 문장은 비문임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규정된 확대투사원리는 Chomsky & Lasnik(1991)의 원리 및 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과 Chomsky(1993)의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Theory)에서 격(Case)과 일치(Agreement) 점검을 근거로 한 기능 핵의 자질(features) 점검 요건으로 발전했다. 즉, 영어의 시제소 T는 주격 자질이 강해서 자질점검을 위해 [DP]를 지정어(specifier)의 위치로 유인하여 확대투사원리를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질점검이론에서 EPP 자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명확하였으나, Chomsky(1995)는 격 자질 점검 대신에 EPP 자질을 [D] 자질로 간주하여 시제소 T에 범주자질인 [D]의 강성 자질(strong feature) 점검을 위해 확대투사원리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Chomsky(1999,2000)에서는 시제소 T의 [D]자질을 제거하고 인칭자질 ([person feature])과 연계한 EPP자질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제소 T가 EPP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자질은 비 해석성 자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으로 삭제를 위해 TP의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EPP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확대투사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EPP자질설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EPP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다른 많은 원리들과 상당부분 잉여적 성격을 보일 뿐만 아니라, EPP구성의 불명확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EPP에 대한 성격이 정확히 명시되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여전히 EPP의 적용층위(application level)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Lasnik(2002)에서처럼 도출단계에서 충족되는 요건인지, Chomsky(1995:123)의 '항시조건(Everywhere condition)'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Bošković & Lasnik(2003)의 주장대로 음성형태 요건(PF requirement)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Epstein, Pires & Seely(2005:67)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EPP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로 최근 Lasnik(2001)과 Chomsky(1999,2000)에서 EPP를 구조적 요건으로서 재해석하여 EPP가 출현할 당시의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부 학자는 EPP를 의미적 요건으로 주장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EPP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보편문법에서의 구조적 역할에 대한 의문점을 가중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EPP설정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EPP자체를 제거하고자하는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모호한 EPP를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최소주의에서의 확대투사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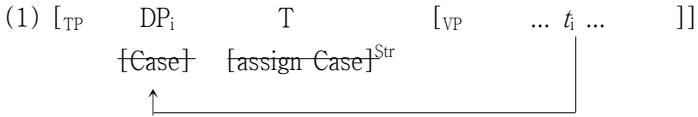
2. 1 자질점검, 자질 유인과 EPP

Chomsky(1993)의 최소주의 프로그램은 문법이론을 최소화하여 문법의 경제성을 향상하여 설명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법구조를 단순화하여 두 접점(interface)인 음성형태(Phonological Form: PF)와 논리형태(Logical Form: LF)만을 남겨두고, 모든 요소는 두 접점에서 문법-외적체계에 의하여 해석 가능한 합법적인 요소이어야 한다는 완전해석원리(Full Interpretation)를 근거로 언어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최소주의 이론에서 언어표현은 자질의 유인(Attraction), 일치(Agreement), 점검(Checking), 삭제(Deletion) 등의 통사부의 조작에 의한 두 접점의 형태론적 자질을 충족하는 형태론적 대상(formal object)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전의 구조 규칙으로 간주되었던 확대투사원리는 기능범주의 형태론적 자질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Chomsky(1993)는 음성형태에서의 강성 자질은 가시적(visible)이며, 음성형태에서 가시적인 자질들은 문자화(Spell-out)이전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도출은 파탄된다는 음성형태 파탄이론(PF crash theory)을 근거로 확대투사원리를 설명 한다¹⁾. 즉, 최소주의에 따르면, 영어의 기능범주 중 하나인 시제소 T는 격 배당과 관련하여 강성 명사 자질(strong nominal features)이라는 형태적 특징을 지녔으며, 반드시 문자화 이전에 점검되어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1)에서 처럼, 시제소 T의 지정어 자리로 동사구내에 위치한 명사구를 이동하여 시제소 T의 격 배당 자질을 점검하여

1) Chomsky(1993)는 형태론적 자질을 강성자질과 약성자질로 구분하여 강성자질은 문자화 이전에 반드시 점검되어 삭제되어야하나, 약성자질은 음성형태에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문자화 이전에서 점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어의 시제소 T는 강한 명사자질을 가지고 있어 명사구의 외현적 이동이 일어나 EPP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에, 영어의 일치소 Agr은 약성 명사자질로 인해 내현적 이동으로 자질 점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질강도의 차이로 영어와 불어의 어순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삭제함으로서 EPP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Chomsky(1993)는 EPP는 시제소 T의 강성 격 배당 자질을 문자화 이전에 점검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명사구를 시제소 T의 지정어 위치로 외현적으로 이동하여 형태론적 점검관계에서 유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PP설명을 위한 상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첫째로, 자질 강도(feature strength)의 구분이 규정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즉, 영어의 주격은 강성인 반면에 대격은 약성이라는 구분은 영어의 격 배당 현상을 기술적으로 단순히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아래 (2b)의 허사구문에 대한 EPP효과를 제대로 설명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2) a. A strange man is in the garden.
- b. There is a strange man in the garden.

(2a)에서 시제소 T의 강성 격 자질이 *a strange man*의 외현적 이동으로 점검되어 합법적이고, 반면에 (2b)에서는 어떠한 이동도 일어나지 않고 허사 *there*의 병합(merge)에 의해 시제소 T의 주격 배당 자질을 점검하게 되어 정문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Chomsky는 허사 *there*는 격 자질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시제소 T의 강성 격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허사 *there*이 병합되었다는 것은 모순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인상구문(raising constructions)에서 연속적 순환 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이 일어나는 아래 (3)에서와 같은 부정사 보어구문(infinitival complement constructions)의 주어 위치로의 이동을 설명 할 수 없게 된다.

- (3) a. John seems to be likely to win.

- b. *e* seems [*e* to be likely [John to win]]
 c. John seems [*t'* to be likely [*t* to win]]

(3c)의 가장 내포된 흔적의 위치에서 *John*이 중간흔적을 경유하여 주절 T의 강성 격 배당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한다고 가정 할 때, 중간 흔적의 위치는 주격을 점검 할 수 없는 위치이다. 만약에 중간흔적 위치에서 주격을 점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격 배당 자질이 점검 된 후 삭제되어 이기원리(Greed Principle)에 의해 더 이상 주절의 격 점검을 위해 이동 할 수 없게 되어 (3a)가 비문으로 잘못 판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²⁾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Chomsky(1995)는 격을 EPP와 분리하여 자질유인 이론(Attract-F theory)을 바탕으로 새롭게 EPP를 설명하게 된다.

Chomsky(1993)에서 EPP 효과는 이기원리를 바탕으로 형식자질 점검을 위한 이동에 의해 유발되었으나, Chomsky(1995)는 이동의 목표, 즉 유인자(attractor)의 형태론적 자질점검을 충족하고자 하는 ‘자살적 이기성(Suicidal Greed)’에 근거한 자질유인이론으로 변화되었다. 즉, Chomsky(1993)에서는 이동항목이 자신의 형태론적 필요에 의해 이동되었으나, Chomsky(1995)에서는 유인자가 자신의 필요성을 만족하기위해 이동항목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을 유발하는 자질 유인의 동인은 유인자의 강성 형식자질은 비핵석성 자질이기 때문에 이동항목의 자질을 유인하여 자질점검을 통한 자신의 자질을 삭제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4)의 예문처럼, Chomsky(1995)에서 EPP의 효과는 시제소 T의 강성 범주자질인 [D]자질을 설정함으로써 유발된다는 것이다.

- (4) a. There seems to be likely to be someone in the garden.
 b. there_i T seems [_i T to be likely [_i T to be someone in the

2) 본문 (3c)의 중간흔적에서 주절로의 이동은 이기원리를 위반 할 수 있다. 즉, 이기원리에 따르면, 어떤 항목이 이동 할 때는 그 이동으로 인하여 그 항목의 형태론적 필요가 충족되어야하나, 만약 중간 흔적에서 격 자질을 점검 할 수 있다고 가정 하면, 더 이상 *John*이 자신의 형태론적 자질을 점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동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garden]]

강성범주자질 [D]설정은 Chomsky(1993)에서 야기되었던 허사 *there*의 격 보유여부 문제와 인상구문과 같은 부정사 보어구문을 거치는 연속적 순환이동을 (4)에서처럼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형태론적, 음운적, 형식적, 또는 의미론적 자질 중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강성 자질을 하나의 자질로 인정 했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EPP자질을 T의 강성 [D]자질로 간주함으로써 이전 Chomsky(1993)의 외현적 논항이동은 격 점검을 위한 최후수단(Last Resort)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에, Chomsky(1995)에서는 기능범주 핵의 강성 범주자질 점검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Chomsky(1993)의 EPP효과는 T의 격 배당 자질 점검을 위해 논항이 외현적 이동으로 점검될 때 부수적으로 유발되었으나 Chomsky(1995)는 EPP는 시제소 T의 강성 범주 자질 [D]를 하나의 자질로 규정하여 T의 [D]자질 점검으로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Chomsky(1993)의 격 점검과 같은 형태론적 자질 점검의 일환으로서 EPP 효과의 유발과 비교했을 때, Chomsky(1995)에서는 강성 [D]자질 점검을 통해 형태론적 주격 점검이 오히려 부수적으로 수반됨으로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자질강도 점검을 위해 형태론적 요건인 격 점검보다 통사적으로 중요한 운용으로 작용된다는 것은 EPP 효과를 설명하기위한 기술적 표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2. 2 MoM (Merge over Move), [person]자질과 EPP

Chomsky(1999,2000)에서는 모든 통사작용을 조화·일치(Match/Agree)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질점검을 위한 이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데, 그는 자질점검은 위치변화가 아닌 장거리 일치(long-distance agreement Agree)에 의해 기본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동특성은 굴절어구의 비 해석성 자질에 의해 발생 한다고 주장한다. 확대투사원리와 관련하여 그는 핵심 기능범주(Core Functional Categories; CFCs)인 보문소 C, 시제소 T와 경동사 v 는 비해석성 ϕ -자질³⁾을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시제소 T와 경동사 v 는 만드

시 비해석성 ϕ -자질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기능 핵(C, T, *v*)은 비해석성 자질을 점검하고 삭제하기위해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하고 이러한 기능 핵의 비해석성 선택자질이 EPP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확대투사원리는 비해석성 강성자질인 EPP 자질을 문자화 이전에 삭제하기위해 명사구의 병합(Merge)이나 이동(Move)에 의해 지정어 위치가 외현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보편적인 조건으로 설명되고 있다.

Chomsky(1999,2000)는 굴절어구의 비 해석성 자질이 이동특성 및 일치를 유발하는 동인으로서, 이때 삭제되어야 하는 비 해석성 자질을 지닌 굴절어구의 핵을 탐침(Probe)이라 칭하고 이러한 비 해석성 자질을 점검 해 줄 대상을 목표(Goal)라고 칭하고 있다. 일례로, 기능핵 T의 비해석성 ϕ -자질을 제거하기위해 T가 탐침이 되어 자신의 ϕ -자질의 값을 정해 줄 목표를 탐색하게 되는데 명사구의 해석성 ϕ -자질만으로는 탐침의 탐색대상이 될 수 없고 명사구의 비 해석성 자질이 목표를 활성화하는 활성화요소(Activator)가 되어 목표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조화·일치 작용이 일어나고 필요한 경우에 이동이 일어난다⁴⁾. 아래 예문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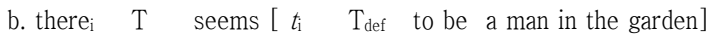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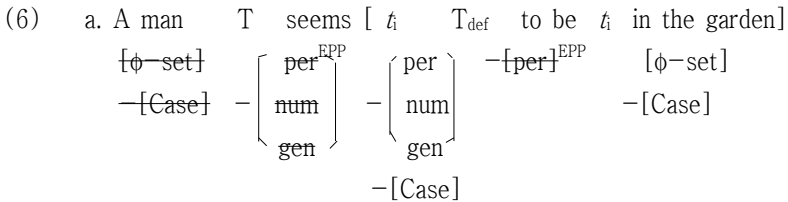
- (5) a. [T be elected an unpopular candidate]
 Probe: $-[\phi\text{-set}]$ Goal: $[\phi\text{-set}]$
 <EPP> $-[\text{Case}]$: Activator
 b. [an unpopular candidate T-was elected t]

(5a)의 구조에서 비 해석성 자질은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기능 핵 T의 일치자질인 $\phi\text{-set}$ 과 기능 핵 T의 EPP 자질, 그리고 명사구 *an unpopular candidate*의 구조 격 자질(structural Case feature)로 구성된다. T

3) Chomsky(2000)에서의 ϕ -자질은 인칭([person]), 수([number])와 성([gender])으로 구성된 형식자질로 간주 하고 있다.
 4) 이전 최소주의에서는 이기원리를 바탕으로 이동되는 요소자신의 자질점검을 위한 통사운용으로 간주되었으나 Chomsky(2000)에서는 탐침자신의 자질을 삭제하기위한 자살적 이기원리(Suicidal Greed)를 주장한다.

의 비 해석성 일치 자질인 ϕ -set은 이동의 대상인 명사구의 ϕ -set과 동일한 값을 지닌 것과 일치를 이루고, EPP-자질은 T의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가 병합되도록 요구하게 되며, 비 해석성 *an unpopular candidate*의 구조 격 자질은 병합 (상기 구조에서는 이동) 후보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 핵 T의 EPP 자질은 비 해석성 구조 격을 지녀 활성화된 목표인 명사구의 이동을 요구하게 되어 (5b)의 문장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동과 병합은 탐침의 EPP-자질에 의해 기인된다고 주장함으로써 EPP는 Chomsky(1995)에서와 같은 자질점검과 관계없이 모든 기능 핵은 지정어를 가져야한다는 비 해석성 선택적 자질 EPP에 의해 기인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5).

Chomsky(1999,2000)에서 주장하는 비 해석성 선택적 EPP자질은 과연 어떠한 속성을 지닌 것인지 의문이 야기 될 수 있다. 즉, 독자적인 자질 속성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ϕ -자질에 소속된 한 부분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Chomsky(2000)의 대답은 아래 (6)의 예문과 같은 명사구의 연속적 순환 이동이 일어나는 '비 통제 부정사 구문(non-control infinitival: T_{def})'과 허사구문에서 EPP의 속성을 알 수가 있다.



5) Lasnik(2001) 역시 Chomsky(2000)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EPP의 개념으로 구의 굴절 핵은 반드시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목적어 역시 일치소(Agro)에 내포된 EPP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목적어 역시 주어와 마찬가지로 외현적 이동이 일어나며, 외현적 목적어 이동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예외적 격 표시 구문(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s; ECM)을 들고 있다. 이러한 EPP 정의의 따르면, 결국 XP-이동은 모든 구 구조가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EPP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begin{array}{l}
 \begin{array}{l}
 -[\text{per}] \\
 \left. \begin{array}{l}
 \text{per}^{\text{EPP}} \\
 \text{num} \\
 \text{gen}
 \end{array} \right\} \\
 -
 \end{array}
 \quad
 \begin{array}{l}
 -[\text{per}] \quad -[\text{per}]^{\text{EPP}} \\
 [\phi\text{-set}] \\
 -[\text{Case}]
 \end{array}
 \end{array}$$

그는 비 통제 부정사 구문의 기능핵인 결손 시제소 T_{def} 는 최소자질보어 (minimal feature complement)만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인칭자질 ([person])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사구는 T_{def}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및 병합으로 T_{def} 의 ϕ -set인 비 해석성 인칭자질만을 삭제하지만, 명사구 자신의 구조 격을 삭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6a)에서 명사구 *a man*은 T_{def}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T_{def} 의 EPP 자질인 인칭자질을 점검하지만 *a man*의 구조 격 점검을 위해 주절의 기능핵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격 점검과 일치 및 주절의 EPP자질을 점검하게 된다. Chomsky(2000)는 허사 *there*은 인칭자질 ([person])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허사 *there*은 일반적인 명사구와 동일한 이동 및 유인 특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6b)의 경우에, T_{def} 는 자신의 EPP자질인 인칭 자질을 삭제하기위해 *a man*의 이동이나 허사 *there*의 순수병합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배번집합(Numeration set)에 허사 *there*가 선택된 경우에는 이동보다 병합을 우선하는 MoM(Merge over Move)에 따라 T_{def} 의 지정어 위치에 인칭자질만을 지닌 허사 *there*가 병합되어 EPP 자질을 삭제하고 주절 기능핵의 EPP 자질을 삭제하기위해 계속해서 이동함으로써 주절 기능핵 T의 지정어 위치로 도달하여 EPP 자질을 삭제하고 제휴어(associate)와의 일치관계를 이루게 된다⁶⁾.

Chomsk(1999,2000)의 EPP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EPP 자질은 독자적인 속성을 지닌 자질이라기보다는 ϕ -set의 한 구성 요소인 [person]자질에 의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즉, 확대투사효과는 EPP 자질의 독립적인 운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칭자질이 조화·일치작용이 일어날 때 부수적으로 삭

6) Chomsky(2000)는 허사 *there*가 T_{def}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할 때, 단일자질인 인칭 자질[person]만을 지닌 탐침(probe) T_{def} 는 지정어 위치에서 자질일치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지만, 목표(Goal)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삭제는 탐침의 일부분이 아닌 완전한 ϕ -자질과 조화(matching)를 이룰 경우만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T_{def} 의 지정어 위치를 통한 연속적 순환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될 수 있는 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EPP 자질의 속성은 ϕ -set의 다른 구성 요소, 즉 다른 자질과의 통사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먼저 다른 자질들은 외현적 이동 없이 장거리 일치에 의해 삭제 될 수 있는 반면에, EPP 자질만은 외현적 이동이나 병합에 의해서만 축적이 가능한가이다. 두 번째로 Chomsky(1999,2000)에서 일치는 완전한 ϕ -set(full ϕ -set)의 자질 일치 및 조화를 통해 삭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EPP만 최소 자질, 즉 단일자질인 [person]자질로 점검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결국 이것은 Chomsky(1981)의 구 구조규칙에서 주장하는 모든 문장은 주어 를 가져야한다는 기술적 표현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EPP 자질인 [person]자질을 삭제하기 위해 X^0 -핵인 허사 *there*가 비 해석성 [person]자질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허사구문에서 허사 *there*의 병합과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Chomsky(2000)의 EPP 자질에 대한 설명은 Chomsky(1993)의 자질점검이론과 Chomsky(1995)의 유인이론에서 제기되었던 EPP의 문제점을 표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확대표준이론이 생성되었던 Chomsky(1981)의 주장으로 회귀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투사원리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요구된다.

3. EPP의 제거와 대안분석

3. 1 Bošković(2002)의 EPP제거 대안

3. 1. 1 Bošković(2002)의 역격여과(Inverse Case Filter)와 연속적 순환 이동(Successive Cyclicity)

Bošković(2002)에 의하면, EPP는 Chomsky가 주장한 기능 핵 T의 형태론적 자질점검이나 자질강도에 기인되는 점검이론이나 유인이론 또는 ‘채워진 지정어 요건(filled-specifier requirement)’과 같은 T의 EPP는 모든 언어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자질이라는 일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 문법적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EPP의 제거를 시도한다. 그는

기존의 EPP효과가 발생하는 두 가지 위치, 즉 논항 이동의 최종 도달점인 주절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와 중간 내포절의 지정어 위치에서 EPP효과를 각각 역격 여과⁷⁾와 연속적 순환이동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Bošković(2002)는 주절의 최종 EPP는 격 이론(Case Theory) 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특히 내포문의 EPP와 관련하여 연속적 순환 이동은 Chomsky(2000)가 주장하는 중간 핵(intermediate heads)의 특성, 즉 자질점검을 위한 연속적 순환이동이 아니라 국부성(locality)에 의한 이동의 요건으로 연속적 순환 이동이 일어난다는 입장을 취한다.

논항 이동의 최종 도달점인 주절의 지정어 위치에 EPP를 주장한 가장 강력한 논거는 아래와 (7)과 같이 주절의 지정어 위치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독립적인 원리로서 EPP에 의존 할 필요가 없음을 Bošković(2002)는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EPP의 제거를 시도한다.

- (7) a. *[_{IP} [_{VP} kissed John]]
 b. *Is likely that Peter likes Mary.
 c. *John believes to have been told Mary that Peter left.

Bošković(2002)는 EPP에 의해 (7a)의 비 문법성을 설명 할 수 있지만 *kiss*의 주어의 의미역(θ -role)을 부여받지 못해 의미역 기준(θ -criterion)을 위배해서 비문이 되고 또한 주절의 시제소 T가 주격을 할당하지 못해 역격 여과를 위반하여 비문이 됨을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7b)의 경우는 의미역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T가 주격을 배당하지 못해 역격여과를 위반하여 비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7c)의 경우는 (7a,b)의 주격점검과 마찬가지로 대격도 일치나 자질이동이 아닌 외현적 이동으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역격여과 위반으로 비문을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EPP의 잉여성을 지적한다.

7) Bošković(2002)의 역격여과는 전통적인 격 배당자(Case assigners)가 그들의 격을 배당하는 요건으로서 (7)의 경우 T가 주격(Nominative)을 배당하는 격 이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Bošković, 2002: 170)

Bošković(2002)는 내포문의 기능 핵 T의 지정어 위치 또한 자질점검이론이나 유인이론, 또는 기능 핵 T의 EPP 자질을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채워진 지정어 요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순환 이동의 결과로 채워진다고 주장한다. 즉, 국부성을 근거로 한 Takahashi(1994)의 “모든 연쇄고리(chain links)는 가능한 짧아야한다”라는 최소연쇄고리원리(Minimize Chain Links Principle: MCLP)⁸⁾에 의해 순환적 이동의 결과로 주장한다. 특징적인 것은 내포문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는 선택적(selective)인 것으로 연속적 순환이동의 결과로 채워질 때 생성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성되지 않고 비워있게(empty)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EPP를 인정 할 경우엔 예상 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아래 구문을 통해 최소 연쇄고리원리를 통한 연속적 순환 이동의 개념을 살펴보자.

- (8) a. [_{CP} What_i do you think [_{CP} t_i that [_{IP} Mary bought t_i]]]?
 b. You think [_{CP} that [_{IP} Mary bought a car]].
 c. The students_i seem [_{IP} t_i to have t_i liked French].
 d. *[_{CP} Who thinks [_{CP} what that [_{IP} Mary bought]]]?

Chomsky(1999, 2000)에 의하면 중간 CP의 핵인 *that*의 EPP 자질점검을 위해 (8a)에서 *what*이 중간 CP의 지정어 위치를 거쳐서 주절의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b)에서는 핵 *that*의 최대투사인 CP의 지정어 위치가 비워있으므로 *that*의 EPP 특성을 충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Bošković(2002)는 (8a)에서의 이동은 *that*의 EPP자질 점검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순환이동의 결과로 내포문의 [SPEC,CP]가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8a)에서 *what*의 이동이 *that*의 EPP 자질 때문이 아니라 순환이동의 결과로 야기된 것처럼, (8c)에서 *The students*는, 내포문의 기능 핵인 Infl의 EPP 특성 때문이

8) Chomsky(2000)는 연속적 순환 이동은 내포문 기능핵의 속성, 즉 자질점검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Takahashi(1994)는 연속적 순환 이동은 자질점검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쇄고리는 가능한 짧아야한다는 요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함으로써 최소연쇄고리원리가 자질점검과는 독립적인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아닌 최소연쇄고리원리에 의한 연속적 순환이동의 결과로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Chomsky(1999,2000)는 *that*이 EPP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수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즉, (8a)의 경우는 *that*이 EPP 특성을 지닌 경우이고 (8b)의 경우는 EPP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여 두 문장의 비 대칭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Bošković(2002)는 이러한 수의성은 (8d)에서 *that*이 (8a)에서처럼 EPP 특성을 지닌다고 가정한다면 (8d)의 비 문법성을 설명 할 수 없게 되어 Chomsky(1999, 2000)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3. 1. 2 Bošković(2002)의 EPP제거 논거

Chomsky(1995)는 허사구문과 관련하여 어휘삽입이 이동보다 훨씬 더 단순한 운용이라는 MoM을 주장한다. 즉, 아래 (9)에서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는 허사 *there*의 삽입이나 *a man*의 이동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MoM이 우선되어 (9a)가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 (9) a.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garden.
 b. *There seems [a man_i to be t_i in the garden]

그러나 MoM은 아래(10)에서 볼 수 있듯이 내포문의 주어위치에 허사 *there*의 삽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사구 *a man*의 이동이 일어나 MoM의 운용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 (10) There was a rumor that a man_i was t_i in the room

(10)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Chomsky(1999,2000)는 국면(phase)의 개념⁹⁾을 근거로 한 하위배번(subnumerarion)의 개념을 이용한다. 즉, 내포문

9) Chomsky(1999, 2000)는 모든 의미역이 배당된 동사구 인 *vP*나 시제와 문형정보 (force)를 포함하는 완전한 구인 CP를 국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TP나 비 대격 (unaccussative)과 수동 동사구는 국면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국면이 완성되면 더 이상의 통사적 운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도출은 국면 단위로 진행된다

에 해당하는 하위배변 집합에 허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허사 삽입 선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구문이 생성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한다¹⁰⁾. Lasnik(1995)의 부분격 (Partitive Case) 가설을 수용한 Bošković(2002)는 (9)에서 EPP를 가정한다면 (9b)의 비문을 설명하기 힘들지만,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가 역격여과나 최소연쇄고리원리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쉽게 설명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9b)의 비 문법성은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로 명사구를 이동하는 것은 최후 수단 조건에 의해 이동이 방지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Bošković(2002)는 부정사 보어구문에서 EPP에 대한 자질점검과 관련하여 설명했던 기존의 생략(Ellipsis)구문이 오히려 EPP의 제거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자질점검 이론에서는 기능 핵은 자질점검을 위한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를 이룰 때 만 그들의 보어를 아래 (11a,b)

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위배변의 개념은 각 국면에서의 어열집합(Lexical Array)을 의미하며 ‘국면 비투과 조건(Phase-impenetrability condition)’에 의해 어떤 하나의 국면이 완성되면 그 핵은 더 이상의 통사적 운용에 비가시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Bošković(2002; 188)는 Chomsky의 국면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래 (i,ii,iii)의 도출을 설명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 i. There has been a book_i put t_i on the table.
- ii. *There has been put a book on the table.
- iii. Mary believes John_i to t_i know French.

Chomsky의 국면의 정의에 의하면 (i,ii)에서 수동동사구는 국면이 아니며 전체 문장이 하나의 국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허사 *there*를 포함하는 하나의 배변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처럼 명사구의 이동보다는 (ii)와 같이 허사의 삽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iii)에서 내포문이 형성 되는 시점에 *John*을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거나 *Mary*를 병합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MoM을 수용 한다면, (iii)에서처럼 *John*의 인상보다는 *Mary*의 병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Chomsky(1999, 2000)는 ‘논항은 의미역 위치에만 병합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여 (iii)에서 *Mary*가 병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Bošković(2002; 188)은 이와 같은 주장은 문법적인 많은 잉여성을 초래한다고 Epstein & Seely(1994: 48-50)의 주장을 들어 반박한다. (자세한 잉여성은 Epstein & Seely(1994: 48-50)의 주장을 참고하기 바라며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와 같이 생략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11c)와 같이 생략이 불가능하다.

- (11) a. John liked Mary and [_{IP} Peter_i [_{I'} did ~~ₜ~~ like Mary]] too.
 b. John met someone but I don't know [_{CP} who_i [_{C'} John met ~~ₜ~~]].
 c. *John believes that Peter met someone but I don't think [_{CP} [_C that Peter met someone]].

반면에 Bošković(2002)는 아래 (12a)의 통제구문(Control constructions)에서 PRO의 분포를 격 이론적 분석을 수용할 때, 즉 PRO가 *to*와 지정어-핵 일치룰 이루어 Infl인 *to*에 의해 영격(null Case)이 점검되어 동사구 생략이 가능한 반면에, (12b)의 예외적 격 표시 구문(ECM constructions)에서는 예상과 달리 동사구 생략이 불가능하다.

- (12) a. John was not sure he could leave, but he tried [_{IP} PRO_i [_{I'} to ~~ₜ~~ leave]].
 b. *John believed Mary to know French but Peter believed [_{AgroP} Jane_i [_{IP} ~~ₜ~~ [_{I'} to ~~ₜ~~ know French]]]
 c. I believe the students_i [_{all} ~~ₜ~~]_j to ~~ₜ~~ know French.
 d. *John met someone but I don't know who_i Peter said [_{CP} ~~ₜ~~ [_{C'} C John met ~~ₜ~~]]

중간 EPP를 충족하기 위해 외현적 목적어 이동을 가정한다면 (12a)의 *to*와 마찬가지로 (12b)의 *to*도 지정어-핵 일치를 통한 자질점검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문으로 판정되는 것을 설명 할 수 없다. 실제로 ECM 구문의 주어는 (12c)의 양화사 표류(Quantifier float)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를 거쳐서 상위절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12b)의 비문법성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12d)에서도 내포문 CP의 지정어 위치로 거쳐 갈 때 의문사 *who*는 핵 C⁰와 지정어-핵 일치를 이루지만 비문으

로 판정되는 것은 생략에 대한 지정어-핵 일치 요건을 EPP요건으로 다시 표현 할 수 있다는 Chomsky(1999, 2000)의 주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Bošković(2002)는 상기 예들이 EPP 자질점검에 대한 반증이며 연속적 순환이동이 자질점검요건을 충족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연쇄고리원리에 의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Bošković(2002)는 허사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위치와 관련하여 EPP이론과 최소연쇄고리원리는 다른 문법적 예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EPP 제거의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즉, EPP 이론에 의하면 허사구문에서 중간 굴절어구의 지정어는 반드시 생성되어야하지만, 최소연쇄고리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허사구문에서 Bošković(2002: 200)의 ‘허사 불 이동 가설(expletives-don't-move hypothesis)’, 즉 ‘비-EPP 가설(no-EPP hypothesis)’의 근거를 아래 (13-14)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3) a. Someone_i is likely [_{IP} *t_i* to be *t_i* in the garden].
 b. There is likely [_{IP} to be someone in the garden].
- (14) a. There seems to be someone in the garden.
 b. There seems *t* to be someone in the garden.

EPP는 (13a)의 허사구문이든 (13b)의 비 허사구문이든 간에 중간 굴절어구의 지정어는 반드시 채워지도록 요구하지만, 최소연쇄고리원리는 (13a)의 비 허사구문과는 대조적으로 (13b)의 허사구문에서는 중간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지 않고 비워있게 되는, 더 정확히 말하여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EPP 제거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그는 허사는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격 점검을 받는 표층위치(surface position)에 격 점검을 위하여 최후수단으로 직접 삽입된다고 주장한다.¹¹⁾

12) Bošković (2002)는 Lasnik(1995)의 ‘허사 *there*는 구조 격(structural Case)을 지니고 그것의 제휴어는 부분 격(partitive Case)을 지닌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고 순수 병합(pure Merge)은 최후수단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EPP를 제거 한다면 허사 *there*가 부정사구의 지정어 위치에 삽입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ošković(2002)는 만약 EPP를 받아들이면 (14b)의 중간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로 EPP를 충족하기 위해 *there*가 삽입 된 후 그 위치에 흔적 *t*를 남기고 주절의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ošković(2002)는 Chomsky(1999, 2000)의 주장대로 허사 *there*가 탐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EPP를 수용하게 되면 (14)에서 주절이 생성되기 전에 내포문 [*there to be someone in the garden*]이 먼저 완성된다고 지적한다. Chomsky(1999, 2000)를 수용할 경우 내포문에 삽입된 허사 *there*는 자신의 비 해석성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부정사구 내에서 어떤 항목을 탐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 해석성 인칭 자질이 삭제되게 된다. Chomsky(1999, 2000)의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에 의해, 허사 *there*가 자신의 비 해석성 인칭 자질을 한번 점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동에 접근 할 수 없어야 함으로 *there*는 주절로 인상 될 수 없다. 결국 EPP를 주장하고 있는 Chomsky(1999,2000)의 이론에서 허사 *there*가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14b)와 같이 EPP를 충족하기 위해 내포문의 굴절 어구에 허사 *there*의 삽입은 가시성 조건에 의해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게 됨으로 (14a)와 같은 문장을 생성 할 수 없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ošković (2002)는 ‘허사 불 이동 가설(expletives-don't-move hypothesis)’, 즉 ‘비 EPP 가설(no-EPP hypothesis)’을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EPP의 제거를 주장한다.

3. 2 Epstein, Pires & Seely (2005)의 명사성 부정사 보어구문 (infinitival complements of nominals)에서 EPP제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명사성 부정사 보어구문에서 T의 EPP설정이 문법성 판단에 중요한 구문운용으로 간주 되었으며 아울러 EPP설정의 강력한 동기로 간주 되었다. 즉, 아래 (15)와 같은 비 통제 (non-control) 부정사보어구문에서 비 문법성은 EPP 제거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EPP 설정의 강력한 근거로 역할하고 있다.

- (15) a. *The conjecture [___ to seem that Bill left] is ludicrous.
 b. *The conjecture [it to seem that Bill left] is ludicrous.
 c. *The belief [___ to seem that [Peter is ill]] upset Mary.
 d. *The belief [*there/it* to seem that [Peter is ill]] upset Mary.

(15a)는 *conjecture*와 *to*가 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격 여과를 위반하지 않았고 *conjecture*의 보어가 인상 술어(raising predicate)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역 이론(Theta theory)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15a)를 배제 할 수 있는 방법은 T에 EPP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15b)의 경우 EPP를 충족하기 위해 허사 *it*을 삽입했으나 *it*의 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문으로 판단된다. (15c)의 *belief*와 *to*도 (15a)와 마찬가지로 역격여과나 의미역이론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하위 TP(lower TP)의 지정어 위치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EPP 요건을 상정한다면 EPP위반으로 (15c)의 비문을 설명 할 수 있다. 반면에 (15d)의 경우 EPP를 충족하기 위해 허사를 삽입했으나 허사가 격 점검을 받을 수 없어 비문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15a)와 (15c)의 비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EPP 요건이 요구되며, 그로 인해 EPP의 존치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Epstein, Pires & Seely(2005)는 Bošković & Lasnik(2003)의 분석을 수용하여 상기 구문에서 EPP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며 궁극적으로 EPP를 제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래 (16)에 제시된 Bošković & Lasnik(2003)의 ‘영 보문사 이론(Theory of null complementizers)’을 수정 보완하여 EPP 제거를 시도한다.

- (16) a. The English lexicon contains null complementizers that are (PF) affixes, each of which requires specific kinds of lexical hosts.
 b. Affix hopping is PF merger.
 c. PF merger requires adjacency at PF.
 (Epstein, Pires & Seely, 2005: 68)

Epstein, Pires & Seely(2005)는 Bošković & Lasnik(2003)의 상기 주장을 수용 하여 영 보문사를 접사(affix)로 간주하며 비 통제 부정사 보어 구문을 TP가 아닌 CP로 받아들인다.¹²⁾ 따라서 접사로서 영 보문사 C는 특정한 어휘 숙주(lexical host)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15a)와 (15c)에서 비문법성은 EPP가 아닌 접사인 영 C가 적절한 숙주를 찾을 수 없어 ‘좌초된 접사 제약(Stranded Affix Constraint)’을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고 주장한다.

Bošković & Lasnik(2003)의 영 보문사 이론을 바탕으로 상기 (15a.b)의 문장을 다시 표현한 아래(17)를 살펴보자.

- (17) a. *The conjecture [_{CP} C [___ to seem that Bill left]] is ludicrous.
 b. *The conjecture [_{CP} C [it to seem that Bill left]] is ludicrous.
 (cf. The conjecture that it seems that Bill left is ludicrous.)

명사 *conjecture*의 부정사 보어구문을 CP로 간주한다면, 영 보문사 C가 존재하게 된다. Bošković & Lasnik(2003)의 영 보문사 이론에 따라 영 보문사 C는 접사로서 [+affixal]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상기 문장의 비문법성은 EPP에 의한 주어가 필요한 요건 때문이 아니라 ‘인접한 +V 숙주(adjacent +V host)’를 요구하는 접사인 영보문사의 요건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에서 배제된다. 영 접사 C 이론은 Bošković & Lasnik(2003)이 독립적으로 유도된 원리로 주장하기 때문에 EPP이론과 또 다른 잉여성을 초래하게 된다. Epstein, Pires & Seely(2005)는 Bošković & Lasnik(2003)의 이러한 ‘영 접사’ 설명을 수용 발전하여 EPP의 잉여성을 주장하며 따라서 EPP의 제거를 주장한다.

Epstein, Pires & Seely(2005)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EPP가 보편문법의 많은 다른 원리들과 상당한 잉여성을 보이며 또한 EPP의 성격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EPP의 잉여성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EPP를 제거하고 독립적으로 유도된 다른 보편문법의 원리로 EPP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Epstein, Pires & Seely(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 (18) a. Obligatory Case discharge theories: requiring subjects of finite T/I under Spec-head agreement renders EPP unnecessary/redundant for finite clauses.
- b. Spec-head agreement theory, perhaps also requiring subjects in finite clauses.
- c. Theta theory
- d. The theory (or theories) of movement, forcing landing sites by locality
- e. Null Complementizer theory
 ((Epstein, Pires & Seely(2005:67-68)에서 요약 발췌)

(18a)는 주절의 주어 위치는 EPP와 기존의 격 점검이론과 잉여성을 보인다는 것으로 기존의 격 이론으로 대체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한 Bošković(2002)의 역격여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8b)의 경우 지정어와 핵 간의 일치를 위해 비 한정절의 주어가 채워져야 함으로 별도의 EPP를 설정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18c)는 (7a)와 같은 비문을 설명하기 위해 EPP에 의지 않고 의미역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18d)는 내포문의 주어위치로 연쇄 이동시에 국부성을 근거로 한 최소연쇄고리원리가 EPP를 대체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언급한 비 통제 부정사 보어 구문의 경우는 영 보문사 이론으로 EPP를 대신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pstein, Pires & Seely(2005)는 결과적으로 EPP의 불명확성과 다른 많은 독립된 원리와의 잉여성은 궁극적으로 EPP 제거논거의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여 EPP 제거를 시도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Chomsky(1981)의 확대투사원리(EPP)의 등장 이래 최근까지의 다양한 논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

면 EPP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편문법에서 독립적으로 기인된 많은 원리들과 잉여적 성격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법의 경제성과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잉여적 성격을 띠며 명료성이 분명하지 않는 EPP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P의 근거가 되었던 Chomsky(1981)의 연구부터 최근 Chomsky(2000)의 이론에 이르기 까지 EPP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타 원리와의 잉여성을 살펴보고, Bošković(2002)와 Epstein, Pires & Seely(2005)의 대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EPP가 적용되지 않는 많은 구문들을 볼 수 있었으며, EPP가 적용 되는 구문에서도 독립된 문법의 다른 원리로 EPP 효과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절의 주어위치를 채우는 것은 격 이론, 지정어 핵 일치 및 의미역 기준이 EPP를 대체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내포문의 주어 위치는 국부성을 근거로 한 이동이론으로 대체가능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EPP 설정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던 명사성 비 통제 부정사 보어 구문의 경우는 Epstein, Pires & Seely(2005)의 영 보문사 이론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독립된 개별 원리로 설명 가능한 통사적 운용을 EPP라는 별도의 원리를 보편문법에 가정함으로써 문법의 단순화 및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본 연구의 핵심은 EPP가 보편문법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입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법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 용 문 헌

- Bošković, Zeljko. The syntax of nonfinite complementation. Cambridge, MA: MIT, 1997.
- Bošković, Zeljko. "A-movement and the EPP," *Syntax* 5 (2002): 167-218
- Bošković, Zeljko & Lasnik, Howard. "On the distribution of null complementizers." *Linguistic Inquiry* 34 (2003): 527-46.
- Chomsky, Noam.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_____.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Cambridge, MA: MIT, 1991. 417-54.
- _____.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The View from Building 29*. Ed. K. Hale & S. Keyser. Cambridge, MA: MIT. 1993.
- _____.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In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1995. 219-394.
- _____.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Cambridge: MA. 1999.
- _____.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Roger Martin, David Michael, and Juan Uriagereka. Cambridge, MA: MIT, 2000. 89-155.
- _____, and Lasnik, Howard. "To appear in J. Jacobs", A. va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Walter de Gruyter: Berlin. 1991.
- Epstein, S. David, Acrisio Pires and T. Daniel Seely. "A theory of null complementizers and (the elimination of) the EPP", C. Ms., U of

Michigan and Eastern Michigan U. 2004.

Epstein, S. David, Acrisio Pires and T. Daniel Seely. "EPP in T: More controversial subjectsw." *Syntax 8 (2005)*: 65–80.

Lasnik, Howard. "A note on Pseudogapping." *Papers on minimalist syntax,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Ed. R. Pensalfini and H. Ura. Cambridge, MA: MIT, 1995.

Lasnik, Howard. "A note on the EPP," *Linguistic Inquiry 32 (2001)*: 356–61.

Takahashi, Daiko. "Minimality of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1994.

Abstract

Elimination of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Alternative Analyses

Chi-Woon Joo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 has been in the center of theorizing within the generative grammar. But the nature of the EPP has recently been claimed to be a pervasive mystery and unclear. Several attempts have been suggested to deduce it from deeper principles. Bošković(2002) provided some arguments against the EPP approach by separating EPP phenomena into two groups: final EPP, consisting of arguments that the final landing site of A-movement must be filled to satisfy the EPP; and intermediate EPP, consisting of arguments that intermediate [Spec,IP]s must be filled to satisfy the EPP. He argues that the final EPP effects could be deduced from the Inverse Case filter and the intermediate EPP could be explained by the successive cyclicity, namely, Minimize Chain Links Principle (MCLP). Epstein, Pires & Seely (2005) attempt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s regarding non-control infinitival complements of nouns that has been argued to provide independent motivation for the retention of the EPP without appealing to EPP by modifying Bošković & lasnik's (2003) theory of null complementizers. The main conclusion is that the domain of application wherein the EPP applies nonredundantly could be deduced and ultimately should be eliminated.

key words: EPP, Inverse Case filter, Successive cyclicity, Minimize Chain Links Principle, null complementizers,

역격 여과, 연쇄순환 원리, 연쇄고리 원리, 영보문사

논문접수일: 2008. 11. 27

심사완료일: 2008. 12. 10

게재확정일: 2008. 12. 15

이름: 주 치 운

소속: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주소: (402-752)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전화: 011-738-0222

이메일: ykjung7@hanmail.net

